

## 사각형에 대한 경이

세계의 네 모서리 頁 9, 4-12, 14 하이프컬렉션

고대 동양의 우주관인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에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사각형은 세계의 구조를 상징하는 원형으로 표상된다. 사각형은 그야말로 인류 문명사와 백학을 갈아대 온 지식문화의 공통 언어이자 일상생활에 산재한 사물의 형태를 이루는 기초 단위다. 하이프컬렉션에서 전시 중인 회화 그룹전 <세계의 네 모서리>는 전시제목이 지난 수사학적 탐의 때론 '하이프컬'라는 전시공간과 장소성, 회화라는 장르와 프레임(Frame)의 기능 등 '사각형적인 것'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상상을 공동하게 한다. 영국 버밍엄의 아이본(Ikon) 갤러리의 디렉터이자 아시아 현대미술 전문가인 조나단 왓킨스(Jonathan Watkins)이 기획을 맡았다.

하이프컬렉션은 2012년 <한국의 그림: 태너에 관하여> 전에서 동양화, 서양화, 현대미술 구분 없이 한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삶과 작업 방식을 전시로 다른 바 있다. 이어 <통경> 전에서는 한국과 영미권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통경'을 다루는 동서양의 시각 차이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의 네 모서리>전은 회화를 중심으로 소개한 하이프컬렉션의 앞선 전시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기획자는 회화라는 장르의 형식과 내용을 주제로 'Four Corners of the World'라는 키워드에 맞게 저개발국을 하듯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한국의 전시 진행법은 '세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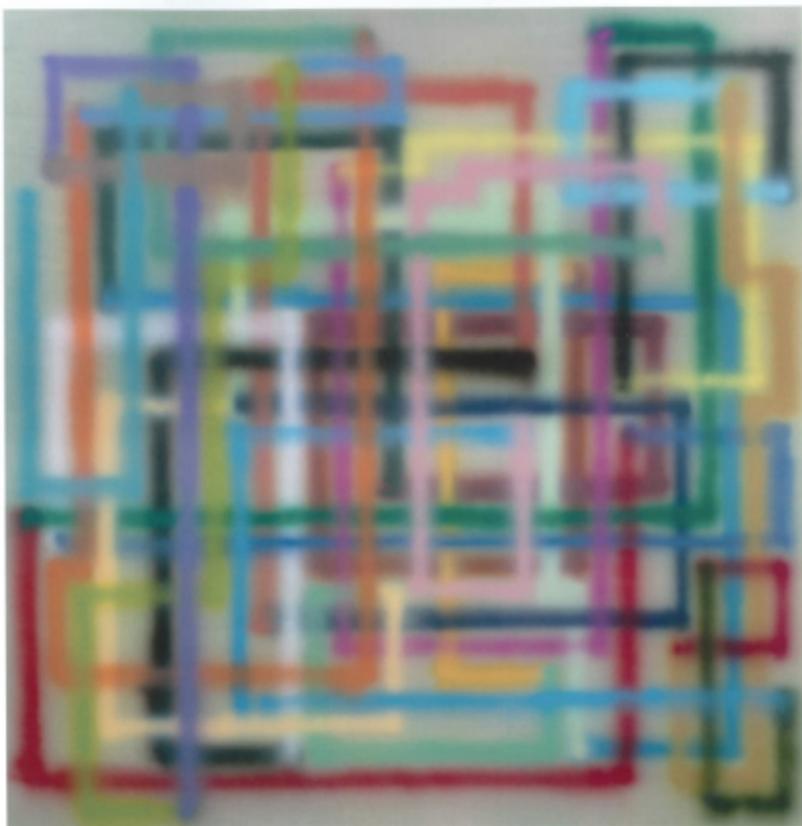
곡'을 의미하는 키워드를 전 세계 지역적 특징을 회화의 프레임인 직사각형과 연결한 기획자의 의도를 살려서 '네 모서리'로 변양했다.

### 사각 프레임 속 또 다른 세계

전시에는 세계 각국에서 작가 7명이 초청됐다. 이번 앤디슨(Hurvin Anderson), 프레데릭 브릴리 부아브레(Frédéric Bruly Bouabré), 마르셀 드자마(Marcel Dzama), 베르나르 프리즈(Bernard Frize), 팀 존슨(Tim Johnson), 아이캅 토텐(Amikam Toren), 장 엔리(Zhang Enli)가 그 주인공. 이들이 작품은 사각형 프레임이 조형 형태로 전면에 노출되거나 암시적으로 제시된다. 또한 회화 형식에 관한 실험이 두드러지거나 추상과 구상이 모호하게 뒤섞여 있다. 사야프리카 코트다부아르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프레데릭 브릴리 부아브레와 호주작가 팀 존슨은 원시적이고 병우주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화적 사고나 영적인 차원을 화면에 담는다. 두 작가의 작품에서 사각형 프레임은 작품의 디자인적 요소이자, 통합된 세계나 우주의 세계를 상징하는 전체 구조다. 1923년생인 부아브레는 참어 작가 중 최고령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아프리카인이다. 그는 베테족의 말을 상형문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베테(Bété) 문자의 발명자이기도 하다. 베테 문화에 관한 이미지와 문자를 표형식으로 설명하는 거대한 지식 백과사전 프로젝트도 종이카드 연작을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세계의 지식> 프로젝트로 확장했다.

그는 상물을 포장한 종이상자를 우편엽서 크기의 카드로 제작해 사각형으로 구획 짓고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린다. 카드 테두리에 손글씨로 프랑스어 텍스트를 써넣는 펠도그래피 기법으로 세계에 관한 지식을 아카이빙한 종이카드 드로잉 연작 <아프리카 얼굴 박물관>, <대사들> 등을 발표했다. 이번 전시에는 세계 각국 아이의 탄생을 상징화한 194개의 드로잉 연작 <전애하는 인간의 탄생>(2011)을 출품했다. 세계는 하나의 '나'라는 원시적이고 범우주적인 세계관을 보여 준다. 팀 존슨은 호주 원주민의 전통 풍경화 기법을 적용해 대공화를 융합하는 영적이고 신화적인 세계를 불교적 도상화로 제시한다. 협업으로 제작한 10개의 페인 연작 <나는 수 없는 회화>(2012)는 호주 원주민이 사용하는 점묘법으로 처리한 바탕 위에 티벳 스투, 부치, 미국 원주민, 테트샨 농부, 호주 원주민 등의 이미지를 플라쿠해서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조화롭게 부유하는 상태로 묘사한 영적 도상화다. 영국작가 아이캅 토텐과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나르 프리즈(Bernard Frize)의 <세계의 네 모서리>는 아이의 탄생, 회화라는 장르와 프레임(Frame)의 기능 등 '사각형적인 것'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상상을 공동하게 한다.





다비드 보자라 (David Bozara)의 **잊혀진 테러리스트(Forgotten Terrorist)** (Unknown 1-5) 캔버스에 아크릴릭 4점, 50cm x 50cm (각각) 1점당 100만 원 2011. 다비드 보자라 2013년 4월 10일 09:30:00 작업의 특색이다. 이 작품은 일종의 수채화 물감을 사용한 드로잉으로 그린. 눈물, 가슴의 단교의 구상되지 않은 관습을 다룬다.

프리즈는 20세기 시각미술의 맥락을 비판하거나 새롭게 수용해 시각형의 회화 안에서 예술의 역할과 회화의 본질을 탐구한다. 보라의 작품은 회화 프레임 안에서 형식적인 실험을 통해 예술에 관한 비판을 가한다. 보라는 한국에서 흔히 '이발소 그림'으로 불리는 레디메이드 회화를 구태해서 그 위에 노컷알이나 콩크 문구, 일상적인 낱말을 스탬프로 찍은 다음 텍스처판 오려낸 기법으로 캔버스 뒷면의 벽을 표면에 드러낸다. 화면 위에 일련 텍스트 문구가 채워는 연개나고,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이미지를 비판하는 상황은 초현실주의자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로트레아몽의 (우산과 재봉틀이 수술대 위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아름다움)이 환기하는 아이러니처럼 관객을 혼란스럽게 한다. 보라는 이 작업을 (안락의자 회화)라고 칭한다. 안락 의자가 '편안한 안락의자처럼 육체적 피로를 풀어주는 예술'을 추구했던 것을 풍자적으로 전유했다. (안락의자 회화) 연라는 본래 작품을 제작한 무명화가 이 작품을 구태해 회화 표면을 레디메이드로 오려낸 이미지 보라의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제시하며, 이 작품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을 던진다. 작가 배로나 프리즈의 회화는 기하학적인 패턴을 표면에 부각시켜 회화 자체의 순수성을 드러낸다. 스프레이 페인팅을 사용해 기계적인 작업 과정에서 회화 자체가 드러내는 색, 선, 붓질의 조형 패턴을 표면에 제한한다. 그의 작업 방식은 미니멀리즘이나 추상주의를 혼합한 방법론으로 개인의 감정을 일체 배제하고 일련의 물질성과 제작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미적 질서를 추구한다.

회화를 넘은 프레임의 세계

영국작가 해빈 엘더슨과 중국작가 장 령리의 작업에 드러난 시각형이나 수평 수직선은 작가 개인의 내면세계를 반영한다. 엘더슨은 회화적 공간 안에 침침, 거친, 물리적으로 공간을 제한하는 장벽을 설정해 공간과 마음을 분리하는 상태를 반영한다. 이는 이스라엘 태생 영국 이주민 가정에서 자라난 작가 자신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나타낸다. 장 령리의 작업은 범 빈 상자나 침대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물의 정적인 상태를 끌로즈업하고 그 사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부재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공허함을 드러내거나 명상적 사색을 일깨운다. 그의 작업은 중국 현대미술의 주류적 경향인 정치적 팝(Political Pop)이나 냉소적 사실주의(Cynical Realism)와 거리를 두고 전통적인 수묵화 기법으로 현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캐나다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마르셀

드자야는 조각 영화 회화 뮤직비디오 디오라마 엔지니어링 등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멀티 아티스트다. 그는 회화의 프레임을 각 장르를 넘나드는 해체와 재구성의 장르로 쓰고 있다.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예술가의 영향을 받은 그는 특히 러시아 аван데의 출몰작이나, 독일의 안무가이자 화가, 조각가인 오스카 슐레머(Oskar Schlemmer)의 3화음 발레(Triadic Ballet)(1927)에서 보이는 페르니컬 발레의 출몰작을 자신이 제작한 영상이나 회화의 연극적 텍스처로 차용한다. 그는 회화로 구성된 시뮬시스를 스코리보도로 삼아 영화를 제작한다. 그렇게 재구성한 작품을 다시 구성해 회화의 역사의 영화의 프레임을 서로 겹친다. 또는 만화나 영화, TV 화면에서 차용한 캐릭터를 시각형 화면 위에 독립된 이미지처럼 모호하게 재현해 원래의 시각 정보를 지우는 방식으로 예술 장르 간의 원본성을 해체한다.

전시기획이 해체와 재배치의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전시는 기획자의 문제의의의심이 공간의 동선과 작품을 제압하고 있다. 평소 회화를 관람할 때 놓치지 쉬운 오랜 문제를 '세계의 네 모서리'라는 전경에서 두루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전시다. 굳이 회화 공간, 전시공간이 아니라도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프레임된 것들로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해 보자. 스마트폰으로 'Four Corners of the World'와 실시간으로 접속되는 오늘날 '세계의 네 모서리'란 어떤 형태로 조각될 수 있는 것일까. 전시는 본 존격이러면 구를 씹는 연진으로, 'Four Corners of the World'에 걸리는 이미지를 따라가며 세계를 포상하는 세계 곳곳의 시각 표현을 즐겨보시길 바란다.

김정복